

서점가에서도 '文 대통령' 열풍 분다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서점가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문 대통령 관련 저서가 1위를 차지한 건 물론 2030 여성을 잡으며 이례적 팬덤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해 기록한 '문재인의 운명' 특별판은 9일 출간 3일 만에 8주 연속 정상을 지켜온 '언어의 온도'를 제치며 1위를 꿰찼다.

특히 지금까지 전체 구매자 중 20~30대 여성 구매 비율이 66%에 이른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구매자를 성별로 살펴봐도 여성의 비율이 77.5%에 이른다.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성의 지지 비율이 높았는데 그 영향이 서점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스24는 "대선 이전에는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의 구매율이 높았던 것과는 다르게 20~30대 여성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의 운명' 특별판의 판매량 비중을 통계청의 2015 인구총조사의 총인구에 대비해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19.4%로 가장 높았다.

서울특별시가 8.2%, 광주광역시가 7.0%로 뒤를 이었고, 6.2%의 부산은 네 번째로 많이 팔린 도시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37.8%의 득표율을 얻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그와 관련한 다양한 '문템'(문재인 아이템)이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그가 표지로 등장한 '타임' 아시아판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스24에서 지난 8일 문재인 표지의 '타임' 아시아판 2차 예약판매를 시작하자 4



최근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표지에 실린 미국 주간지 '타임' 지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의 '운명' 1위 차지... 20~30대 여성 구매 비중 높아

예스24 "문 대통령 지지가 하나의 팬덤 문화로 자리잡아"

시간만에 1만부가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1분당 42권을 판매한 것으로 최근 16년간 가장 빠르게 팔린 도서인 한강 '채식주의자' 1분당 판매권수 9.6권과 2012년 출간된 '안철수의 생각'의 1분당 판매권수 9.4권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예스24는 전했다.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지난해 5월 17일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인

터내셔널상 수상 소식 직후부터(한국시간 기준 17일 오전 6시) 17일 18시까지 약 12시간 동안의 판매량이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산해 6833부를 돌파하며 1분당 9.6권씩 팔렸다.

'안철수의 생각'은 2012년 7월19일 정오부터 정식 판매를 시작한 당일 자정 기준 6782권이 판매됐고, 1분당 약 9.4권씩 팔렸다.

'타임' 아시아판의 구매자 분석에서도

2030 여성의 구매 비중이 두드러졌다. 30대 여성이 23.6%로 가장 높은 구매율을 나타냈고, 20대 여성이 23.3%로 0.3%포인트의 미세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예스24는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타임' 아시아판은 올 들어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구매한 도서 1위로 등록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 표지 '타임' 아시아판과 관련 통계청의 2015 인구총조사의 총인구에 대비해 지역별 판매율을 살펴본 결과, '타임' 아시아판 구매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34.7%와 25.4%로 뚜렷하게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가 6.3%로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 서점가 열풍은 어린이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시대를 이끄는 인물의 이야기로 구성된 어린이책 '후? 스페셜(Who? Special)' 시리즈의 문재인 편은 대선이 치러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의 판매량이 대선 직전 3일과 비교해 약 800% 가까이 증가했다.

예스24는 "특히 사회 정치 분야의 주목차준인 40대 여성과 30대 남성의 높은 구매비율을 나타내 자녀에게 책을 사주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영 예스24 도서팀장은 "지금까지는 특정 정치인의 지지층을 단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봤다면, 이번 대선 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하나의 팬덤 문화로 자리잡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가 하나의 국민적 축제로 여겨지는 미국과 같이 국내에서의 정치 및 정치인 중심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봤다. /뉴스



전주 신진예술가 4기 지원사업 선정자 수여식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지난 11일 '전주 신진예술가 4기 지원 사업'에 선정된 4명의 예술가에 대한 수여식을 가졌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일환으로 매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전주에 연고를 둔 젊은 예술가(만20세 이상 만3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선정자는 유망작품지원 부문에 김아영(32세, 미술·회화) 고소리(31세, 창극·소리극), 데뷔작품지원 부문에 이희수(27세, 미술·회화) 유란(26세, 대중음악) 이상 4명이며, 이들 작은 오는 10~11월 중 전주시 일원 문화예술항유 공간에 전시될 예정이다.

김아영 씨는 전북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홍익대 회화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작품명 'werden'은 작가가 살면서 느낀 자아 성찰을 소수주류 표현하고 이를 선 굵은 터치의 회화작업으로 표현했다.

고소리 씨는 남원정보국악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전북대 한국음악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그는 힘겨운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애 속에서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밴드음악과 결합해 재해석한 소리극 '그냥 그런 두 여자의 이야기'를 준비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희수 씨는 전주 유일여고와 중앙대 한국화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는 한국화의 선 기법을 활용한 전시 '거기에 나는 없다'를 기획, 현대인이 살면서 느끼는 우울증과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하는 존재의 상실을 거울이라는 오브제를 가변 설치해 표현했다.

유란 씨는 전주 성심여고와 서울예대 실용음악과(작곡)를 졸업했다. 전주의 아름다운 장소를 모티브로 한 '탄생: 당신과 나의 겹쳐진 시간'이라는 앨범 제작 및 공연을 통해 전주를 노래에 담았다.

정정숙 대표이사는 수여식에서 "전주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포용하는 넉넉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전주가 문화특별시를 선포한 만큼 문화예술인들이 이곳 전주에서 예술행위를 지속·영위할 수 있는 토양 마련에 전주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옛 결혼제도 모순 희화화

국립시립극단 가곡극 '시집가는 날', 전주박물관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5월 아간개장 문화공연으로 전주시립극단의 가곡극 '시집가는 날'을 마련한다. 공연은 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박물관 강당.

이번 공연은 극작가 오영진 선생의 희곡 '행진사적 경사'를 악극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신명나는 전통음악과 한국의 아름다운 춤사위가 어우러지는 한미당을 만날 수 있다.

'시집가는 날'은 전대 민담 '뱀서방(구령선비)'에서 소재를 가져와 구습 결혼제도의 모순과 양반들의 권력지향성, 우매성 등을 희화화 했다. 작품은 무남독녀 김봉이를 절친한 친구에게 보내지 않기 위해 하녀인 입봉이를 신부로 둔갑시킨 영랑의 소동을 그린다.

무대는 전주시립극단의 흥성찬 삼일연출가의 지휘 아래 18명의 배우가 함께한다.

공연은 딱딱할 것만 같은 주제와는 달리 쉬운 극의 구조와 빠르고 유쾌한 전개로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공연관람은 무료. 전주박물관 누리집(jeonju.museum.go.kr)에서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정해은 기자

중국 후난성 기예단 군산공연 성료

지난 13일 군산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준비한 중국 후난성(湖南省) 서커스공연이 1,200여명의 관객을 매료시키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당일 공연에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쑤셴위(孫顯宇)총영사와 주한중국문화원 스투이린(史瑞琳)원장 등이 한준수 군산부시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군산시는 지난 20여 년간의 대중국 교류를 통해 쌓아온 문화교류의 성과를 이번 '다채로운 후난-중국서커스종합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여줬다.

이번 공연은 지난 50년간 세계 60여 개국을 방문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후난성 기예단의 중국서커스종합공연으로 작년 10월 주한중국문화원과 군산시의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진행된 2017년 두 번째 중국 전통 문화예술 기획공연이다.

1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90분간 중국의 화려한 전통 기예단의 퍼포먼스로 알차게 꾸려졌던 이번 공연은 중국의 전통 음악, 무용, 무술, 기예에 현대적 색깔을 입혀 풍성하고 다양하게 버무려진 맛깔 나는 공연으로 군산시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10여명의 배우가 밀짚모자를 사용해 인간 탑을 만들고 공중회전으로 객석을 유쾌하게 만들었던 밀짚모자 공연, 3명의 배우가 조화를 이뤄 인체의 아름다움을 돋보였던 '삼인조형', 발레의 형식을 빌려 접시를 돌리며 우아한 중국 여인의 선을 드러내줬던 '발레 접시돌리기', 공중에서 날아배우가 비단으로 연결되어 관객들의 시선을 허공에 붙들어 놓았던 '공중주조' 등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으로 시민의 탄성과 감탄, 환호를 이끌어 냈다. /군산=정현 기자

전통무용의 멋·아름다움 그대로

도립국악원 '원향, 춤 맥을 잇다', 소리문화전당서

전북도립국악원의 2017 목요국악예술무대 '원향, 춤 맥을 잇다'가 오는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한국무용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이기 위한 무대로 전북 지역 춤을 대표하는 거장파 무용단원들이 다양한 전통 춤의 향연을 선보인다.

총 6작품으로 구성된 공연은 농악에서 쓰이는 호적과 구성된 구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살풀이춤의 미학적 특징인 한과 슬픔이 베어있는 '호적구음살풀이춤(정형인류)'를 비롯해 지난해 7월 군산항토문화제 20호로 지정된 '권번부채춤(장금도류)', 전북을 대표하는 춤으로 자리매김한 춤 '금과관랑무(금과류)'를 펼쳐 보인다.

이어지는 무대에선 조갑녀 예인의 혼이 담긴 몸짓과 정신의 영향을 받은 즉흥성이 강한 작품 '한춤(해울 정경희춤)'과 호남 무도농악의 명인 나금추의 부포놀이로 가벼운 몸짓과 유려하면서도 묵직한 부포의 조화로운 움직임이 돋보이는 춤 '부포놀이', 춤의 조화가 어우러져 기교가 뛰어나고 세련되면서도 매우 힘이 있으며 예술성이 돋보이는 '진도복춤(박병천류)' 등 정통춤을 대표하는 명무들의 품격 높고 깊이 있는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예매는 홈페이지 <http://www.kukakwon.or.kr>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에 방문하면 오후 6시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조준모의 출발! 전북대행진'

TBN전주 개국 15년 특집 마련

전주교통방송(FM102.5MHz)의 '굿모닝~준모닝~조준모의 출발! 전북대행진'이 전주교통방송 개국 15주년을 맞아 특집을 마련한다.

15일 오전 7시부터 방송되는 '조준모의 출발! 전북대행진'은 도내 각 기관장들의 '1일 MC 체험'으로 꾸며진다.

15일 김승수 전주시장을 시작으로 16일 군산대학교 총장, 17일 전북은행장, 18일 김생기 정읍시장, 19일 정현을 익산시장인 스튜디오에 출연해 1시간 동안 MC 조준모 씨와 공동으로 생방송을 진행한다.

방송 코너는 출근길에 교통재보, 청취자들의 문자 사연 소개, 게스트·시민과의 인터뷰, 노래선곡 및 소개, 각 기관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 등으로 짜여진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라디오라는 매체의 진행자로서 과연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궁금하다"면서 "1일 MC 체험은 도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색다른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19일 '한지 활용 위빙기법 워크숍'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대수) 한지산업지원센터는 한지 관련 작가와 한지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 '한지를 활용한 위빙(Weaving)기법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해외작가를 초빙해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한지 관련 작가와 시민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지 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초빙작가는 네팔인 디파라자슈레스타(Deepak Raj Shrestha) 씨로, 일본, 스위스, 미국, 그리스, 필리핀, 독일 등 여러 나라에 이번 기술을 활용한 작품을 전시하고 워크숍을 진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지를 활용한 위빙기법'이라는 주제의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지를 소재로 활용한 위빙(Weaving)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우리나라 제작기술과 유사한 네팔의 위빙기술을 비교 체험하고 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 참여에 관심 있는 작가나 시민은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 후 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